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과 비극성

김재웅*

차례

- I. 머리말
- II. 고령지역의 역사와 설화의 대응관계
- III. 고령지역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 IV. 고령지역 설화에 나타난 비극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고령지역의 설화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내포한 전설이 풍부한 편이다. 고령지역 설화는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비극적 패망, 왕조 교체기의 충절의식,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의 저항의식 등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문학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령지역의 역사와 설화의 대응관계는 지역민의 역사성과 비극성을 해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은 지역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문학적 대응을 보여준다. 대가야의 건국신화 〈정견모주〉는 가야연맹의 맹주로 성장하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가야의 패망을 내포한 〈예동산성〉, 〈거북바위〉, 〈신동의 비녀〉, 〈썩은덤〉 등의 전설은 비극적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야 전설의 역사성과 저항의식은 민중의식 속에 잠재하다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거듭 재창조되었다.

고령지역 설화의 비극성은 대가야의 안타까운 패망을 보여준다. 〈예동산성〉은 신라의 침략에 대비해 산성을 축조했으나 신라의 속임수에 속아서 패배하는 비극성을 보여준다. 〈거북바위〉는 대가야의 마량장군이 신라의 침입에 대항하는 민중의식을 보여준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다. 〈신동의 비녀〉는 대가야의 왕실이 가야산으로 피신하면서도 새로운 국가의 재건을 다짐하는 비장한 각오가 내포되어 있다. 〈썩은덤〉은 대가야 왕실의 권위 실추와 백성의 분열로 인하여 소통하지 못한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가야 전설은 역사적 패배를 극복하려는 지역민의 비극적 저항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령지역 설화는 역사성과 비극성을 통해서 대가야의 건국과 패망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고령지역, 설화, 전설, 신화, 대가야, 역사성, 비극성, 패망, 저항, 문학적 대응

I. 머리말

구비설화는 일정한 사건에다가 문학적 허구를 섞은 이야기 문학을 말한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해서 끊임없는 생성과 변화를 거듭한 고령지역의 구비설화는 지역민의 세계관을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는 살아있는 문학이다. 고령지역 설화는 지역의 증거물과 관련된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아기장수 전설과 명당을 둘러싼 풍수설화, 해학적 민담 등과 같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고령지역의 설화마저도 지역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지역은 대가야의 古都로 역사적 전통이 구비설화로 전승되고 있는 곳이다. 구비설화는 당시의 역사적 변화에 대응한 문학적 성격을 풍부하게 전승하고 있다. 〈정견모주〉 신화는 대가야의 건국신화가 창작되는 역사적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동산성〉, 〈거북바위〉, 〈신동의 비녀〉, 〈썩은덤〉 등의 전설은 대가야의 패망을 전승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고려에 충절을 받친 〈미충산과 미충장군〉과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한 〈송암 선생 부인의 박〉은 역사적 변천과 구비설화의 문학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령지역의 설화는 역사성과 비극성을 내포한 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은 대가야를 비롯한 역사적 변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역사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지역 설화의 비극성은 대가야의 역사적 패망에 대한 전설의 문학적 대응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고령지역의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과 비극성은 대가야의 건국과 패망을 해명하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고령지역의 설화에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역사의식과 비극적 세계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가야의 고도로 알려진 고령지역의 설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빈약한 자료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고령지역의 설화에 대한 자료조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¹⁾ 그나마 고령문화원에서 채록한 설화자료는 다소 문제를 안고 있지만²⁾ 고령지역 설화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령문화원에서 채록한 설화자료는 현장조사 자료와 설문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³⁾ 현지조사보다는 설문조사의 비중이 높아서 제보자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고령문화원에서 채록한 설화자료는 대가야 설화가 사라지기 전에 채록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김재웅은 좀 더 풍부한 설화자료와 전승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령지역의 설화를 조사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⁴⁾ 대중매체의 발달과

1) 고령문화원 편, 『우리 지방의 민담·전설 및 지명유래』, 고령문화원, 1988. 김광순, 『경북민담』, 형설출판사, 1978. 김광순,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설출판사, 198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3. 김재웅,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김재웅, 『잊혀져 가는 고령 지역의 마을문화』, 고령문화원, 2002.

2) 이지하,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가치」, 『고령문화사대계 문학편』 3권,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206~207면.

3) 고령문화원 편, 『우리 지방의 민담·전설 및 지명유래』(고령문화원, 1988).

4) 김재웅, 「고령지역 설화의 전반적 고찰」,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138~139면. 대가야의 고도인 고령지역의 설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1997년 3월 9일부터 1997년 8월 1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대가야와 관련

마을공동체문화의 해체에 의해서 고령지역 설화의 전승현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광순이 최근에 출간한 고령지역의 설화자료는 기존의 자료와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⁵⁾ 따라서 고령지역의 설화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존의 설화자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고령지역의 설화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재웅은 고령지역 설화의 주제별 분류를 통해서 전반적 성격을 고찰하였다.⁶⁾ 그리고 대가야 전설의 존재양상과 특성을 분석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했다.⁷⁾ 최근에 이지하는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가치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⁸⁾ 이러한 기존연구는 대가야 전설에 주목한 논의를 제외하면 고령지역 설화의 전반적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과 비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지역의 설화는 민담보다 지역성을 내포한 역사적 전설이 매우 풍부하다. 이 때문에 고령지역의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과 비극성을 분석하여 역사적 패배를 극복하려는 지역민의 의식세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된 설화를 채록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편적인 자료를 확보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가야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과 야로면에 대한 설화조사를 1999년 7월 9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했지만 대가야와 관련된 설화는 채록하지 못했다.

- 5) 김광순, 『한국구비문학 경북 고령군』, 박이정, 2006.
- 6) 김재웅, 「고령지역 설화의 전반적 고찰」,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135~161면.
- 7)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존재양상과 특성 연구」, 『한국어문연구』 14집, 한국어문연구학회, 2003, 109~126면.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양상과 의미」, 『대구·경북 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출판부, 2007, 303~330면.
- 8) 이지하,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가치」, 『고령문화사대계 문학편』 3권,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205~233면.

II. 고령지역의 역사와 설화의 대응관계

고령지역의 설화는 성주, 대구, 합천, 군위 등에 비하여 지역성을 내포한 전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⁹⁾ 민담은 지역성을 상실한 반면에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를 통해서 지역민의 의식세계를 뚜렷이 담아내고 있다. 고령지역의 역사와 설화의 대응관계는 대가야의 건국과 패망,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기,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과 같이 역사적 변천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고령지역의 설화는 역사적 변천에 따른 설화의 대응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고령지역은 알터 암각화 같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대가야 왕릉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고령지역의 주민들은 가야산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낙동강과 그 지류인 대가천이 흘러서 산수의 조화를 이루는 곳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낙동강 유역에는 비옥한 토지가 발달되어 일찍부터 안정된 논농사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고령지역은 찬란한 대가야 문화를 형성, 발전시켰을 것이다.

한국설화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면 삼국에 비하여 대가야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대가야가 신라에게 패망하여 신라 중심으로 편찬된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자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¹⁰⁾ 대가야는 삼국에 비하여 주체적인 역사 기록이 부전하기 때문에 자세한 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파악하기 어렵다. 대가야에 대한 기록은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9) 김재웅, 앞의 논문, 132~161면. 김재웅, 「군위지역 설화의 연구」, 『군위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8, 187~207면. 고령지역의 설화는 경북의 성주와 군위, 대구, 경남의 합천 등과 비교하면 전설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10) 김부식,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6.

11) 김부식, 이병도 역주, 앞의 책과 중국의 『삼국지』, 『송서』, 『남제서』 등과 『일본서기』에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高靈郡은 본시 大加耶郡이다. 시조 伊珍阿豸王에서 道設智王까지 16世 520년 인데, 眞興大王이 攻滅하여 그 땅으로 대가야군을 삼았다.¹²⁾

삼국시대 초기는 정치적 제도와 각종 문물을 정비하여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낙동강 유역에 흩어져 있던 가야연맹은 금관가야가 맹주로 활동하다가 신라에 병합된 뒤부터 대가야가 가야연맹의 대표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견모주> 신화는 대가야의 역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그런데 <정견모주> 신화는 지역민들에게 구비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최치원의 <석리정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전한다. 따라서 대가야의 건국신화 <정견모주>는 가야연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고대국가로 성장한 신라는 낙동강 지역의 6가야를 정복하면서 삼국통일의 토대를 다지게 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는 패배한 대가야의 역사를 삭제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가야는 신라에 저항하다가 패망했기 때문에 신라의 혹독한 탄압을 받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가야의 역사적 패배에 대한 고령지역 설화의 문학적 대응은 풍부한 실정이다. 대가야의 패망을 수용한 <예동산성>, <거북바위>, <신동의 비녀>, <썩은담> 등의 전설은 지역민의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¹³⁾

고령지역은 대가야가 신라에 패망한 뒤에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와 후삼국을 거치는 동안 고령지역은 별다른 역사적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고려말기와 조선 초기에 고령지역은 다시 역사의 무대로 부각된다. 고령지역의 미송장군은 조선왕조를 창업한 이성계에게 협조

12) 김부식, 이병도 역주, 앞의 책, 215~6면.

13)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양상과 의미」, 『대구·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출판부, 2007, 303~332면.

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게 된다. 〈미숭산과 미숭장군〉, 〈미숭장군과 애마〉에는 미숭산을 거점으로 미숭장군이 이성계의 군사와 대결하는 내용이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는 고령지역에 침입한 왜적을 격퇴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송암선생 부인과 박〉에는 고령지역 의병장인 송암 김면장군의 부인이 지혜를 발휘하여 왜적을 물리친다. 〈오로성 이야기〉는 오로동 주민이 성을 쌓아서 왜적을 격퇴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임진왜란에 대응한 고령지역의 설화는 지혜를 발휘해 왜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이야기이다. 지역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마을에 침입한 왜적을 방어하는 설화는 역사적 비극성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경찰이 고령지역의 산세를 보고 혈맥을 자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훌륭한 인물이 출생할 산세의 혈맥을 자르는 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곡동의 전설〉은 고령지역의 산세와 혈맥자르기를 통해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들은 고령지역에서 훌륭한 인물이 출생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려는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곡동의 전설〉은 고령지역의 증거물을 삽입하여 역사성과 비극성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고령지역의 역사와 설화의 문학적 대응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고령지역의 설화는 대가야의 건국과 패망에 관련된 대가야신화와 전설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왕조 교체기와 임진왜란 및 일제강점기 등에 이르기까지 고령지역의 설화는 문학적 대응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고령지역의 설화가 단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민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고령지역의 설화는 대가야를 비롯한 왕조 교체기,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다양한 문학적 대응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Ⅲ. 고령지역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

1. 대가야의 건국과 신화의 역사적 대응

고령지역에는 〈정견모주〉 신화가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화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신성한 이야기를 말한다.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에서 신성하다고 인정하면 신화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정견모주〉 신화는 대가야 건국신화의 신성한 권위와 초월적 경이를 지닌 숭고함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구비신화로서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역사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재구연한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는 가야연맹의 한 소국으로 형성되었다가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되면서 가야연맹의 주체적 세력으로 부상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가야는 520여 년 동안 왕의 칭호를 하면서 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야연맹의 정통성을 계승한 대가야는 자주적인 국가임을 천명하기 위해 건국신화를 만들만큼 뚜렷한 맹주로 성장한다. 대가야의 건국신화는 최치원의 〈釋利貞傳〉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견모주〉 신화를 통해서 가야연맹에서 대가야가 맹주로 활동하게 되는 역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인 이비가에 감응되어 대가야왕인 뇌질주일과 금관가야국왕인 뇌질청예의 두 사람을 낳았다. 즉 뇌질주일은 이진하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예는 수로왕의 별칭이다.¹⁴⁾

위의 인용문과 같이 고령지역의 〈정견모주〉 신화는 대가야의 건국에 대한

14) 『신증동국여지승람』 29권, 高靈縣 建置沿革條 伽倻山神 正見母主 乃爲天神夷毗訶之所感 生大伽倻王惱室朱日 金官國王 惱室青裔二人 則惱室朱日 爲 伊珍阿王之別稱 青裔爲 首露王之別稱.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야산신 정견모주와 천신 이비가의 결합으로 대가야왕 뇌질주일과 금관가야왕 뇌질청예가 탄생한 것이다. 산신과 천신의 결합으로 출생한 뇌질주일이 대가야의 건국시조가 되었다. 이것은 하늘과 땅 또는 토착세력과 이주세력이 연합하여 대가야국을 건국하는 신화적 생명력을 반영하고 있다.

대가야의 〈정견모주〉 신화는 금관가야의 〈김수로왕〉 신화보다 후대에 창작되었을 것이다.¹⁵⁾ 대가야국 건국신화는 천신과 지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필요했던 역사적 사정을 보여준다. 후기 가야연맹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대가야를 상징하는 건국신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관가야의 〈김수로왕〉 신화와 달리 대가야는 〈정견모주〉 신화를 창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는 건국신화 〈정견모주〉를 통해서 신라와 백제의 정치적 힘의 균형을 이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 관계를 주체적으로 체결하면서 성장한다.¹⁶⁾

대가야 건국신화는 지역민들에게 구비전승의 생명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 건국신화 〈정견모주〉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관에서 전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가야 건국신화는 문헌기록을 토대로 새롭게 구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가야의 〈정견모주〉 신화를 구연하는 제보자들은 사학자이거나 한학을 공부한 남성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¹⁷⁾ 아마도 고령지역이 대가야의 고도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역사적 기록을 전승한 것으로 보인다.¹⁸⁾

15) 일연, 이가원 역, 〈가락국기〉, 『삼국유사』, 태학사, 1991, 179면.

16) 이문기, 「대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193~253면.

17) 대가야의 〈정견모주〉 신화를 구연한 제보자는 향토사학자 김도윤 선생과 고령문화원장을 역임한 유병규 선생 등은 역사의식을 가진 지식인이다.

18) 이러한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 것이 〈액유각인〉이다. 이 신화는 『일본서기』에 기록된 내용을 재구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대가야 <정견모주> 건국신화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가야의 건국신화 <정견모주>는 고령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역사기록을 구비전승한 것이다. 이것은 대가야의 고도인 고령지역의 역사성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대가야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가야의 건국신화 <정견모주>는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을 숭고미로 반영하고 있다.

2. 대가야 패망과 전설의 역사적 대응

고령지역의 전설은 대가야의 패망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풍부하게 보여준다. 지역민들은 대가야 패망의 원인을 고령지역의 전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가야연맹의 맹주로 성장한 대가야가 왜 신라에 패망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대가야의 역사적 패망은 지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승자인 신라 설화와 역사적 패자인 대가야 설화의 비교연구가 요청되고 있다.¹⁹⁾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도 독자적인 역사를 발전시키면서 성장했다.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통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외교적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대가야는 신라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 이 전쟁은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여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대한 영토 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²⁰⁾ 신라는 낙동

19) 김재웅, 『대구·경북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출판부, 2007. 신라 설화와 대가야 설화의 공통점은 지역민의 역사적 성격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경주지역 설화는 승리의 역사를 내포한 반면에 고령지역 설화는 비극적 패배의 역사를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령지역의 설화는 역사적 패배를 극복하려는 지역민의 문학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 이형우, 「대가야의 멸망과정」, 『가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137~149면.

강 유역을 확보하여 백제를 견제하는 한편 고구려의 남하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가야와 신라의 역사적 전쟁이 대가야 전설에 구비 전승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대가야 전설은 신라에 패망한 역사적 사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가야의 잃어버린 역사를 보완할 수도 있다. 대가야의 역사적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령지역에는 〈예동산성〉, 〈거북바위〉, 〈신동의 비녀〉, 〈씩은덤〉 등의 전설이 존재하고 있다.

대가야의 역사적 패망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가야의 지정학적 위치가 신라와 백제를 경계로 한 낙동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낙동강 유역은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벼농사와 교통이 발달하고 풍부한 철산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대가야는 신라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예동산성〉은 신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에서 방어전을 펼친 것이다.²¹⁾

삼국통일을 염원한 신라와 백제와의 사이에 있는 6가야는 늘 목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마침내 신라의 진흥왕은 大加耶 高靈을 제외한 5가야의 항복을 받아내었으나 대가야국은 항복치 않으므로 늘 대가야 정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진흥왕은 이사부 장군을 대장으로 삼고 화랑 사다함을 부장으로 하여 마침내 대가야 정벌을 나섰다.

이 소식을 들은 대가야 사람들은 덕곡면 예동 뒷산에 산성을 구축키로 하고

21) 김종철, 「고령군 문화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7, 174면. 예동산성은 대가야의 고령읍 연조리 일대를 감싸고 있는 주산성과 망산성은 도성을 방어하고, 서쪽의 미송산성, 서남쪽의 만대산성, 남쪽의 소학산성은 주산성의 서남쪽 배후를 방어한다. 그리고 예동산성은 고령에서 북쪽으로 침입하는 적을 격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대가야의 산성은 본관리산성, 운라산성, 노고산성, 의봉산성, 풍곡산성, 무계리산성, 도진산성 등 많은 산성이 도성을 중심으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가야는 산성을 전략적 요충지에 건설했기 때문에 신라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산성을 쌓는 데 산의 경사가 너무 심하여 산성구축이 매우 어려웠다. 그때 염력을 쓰는 道人이 찾아와 자기가 산성을 구축하겠다고 하니 대가야에서는 그 사람에게 산성을 쌓기로 하였다.²²⁾

앞의 인용문과 같이 대가야는 금관가야처럼 신라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다. 신라의 침략에 대가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다르게 〈예동산성〉 전설은 견고한 산성을 쌓으며 신라의 침략에 대비한다.²³⁾ 산의 경사가 심하여 도인이 찾아와서 산성 쌓기에 전력을 다했다. 그런데 신라군은 ‘매월’이라는 여인을 보내 도인을 유혹한다. 이러한 신라의 미인계에 속아서 대가야는 패망한 것이다. 지역민은 신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략적 요충지에 산성을 쌓아서 방어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거북바위〉는 신라와 대가야의 전쟁에서 영웅적 인물 ‘마랑장군’의 활약을 부각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이 6가야연맹 중 5가야의 항복을 받았지만 대가야는 끝내 항복하기를 거부한다. 진흥왕은 이사부 장군에게 5천명의 군사를 주어 대가야국을 침공하게 한다. 그런데 신라의 침략을 방어한 대가야의 장군은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거북바위〉 전설에는 신라의 침략에 맞서 대가야의 군사를 지휘한 ‘마랑장군’이 등장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러던 중 신라 진흥왕은 육가야 중 대가야국을 제외한 가야를 모두 항복을 받고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는 대가야국을 정벌하기 위하여 이사부 장군에게 5천의 군사를 주어 대가야국을 침공했다. 전쟁에 휩싸인 대가야국은 중과부적으로 대가야국이 패하고 말았다. 마랑 장군은 신라군에게 포위가 되어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끝내는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²⁴⁾

22) 고령문화원, 앞의 책, 47면. 제보자는 고령군 덕곡면 반성동 735번지 김병수이다.

23) 김부식, 이병도 역주, 앞의 책, 96면. 신라 진흥왕 23년 9월에 가야가 배반하니, 왕이 이사부를 명하여 칠 때, 사다함을 부장으로 삼아 그를 돕게 하였다. 사다함이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전단문으로 달려 들어가 백기를 세우니, 성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지라.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임하니, 성중이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대가야의 '마랑장군'은 신라군의 침입에 맞서 결사 항전했지만 중과부적으로 패배한다.²⁵⁾ 〈거북바위〉 전설은 영웅적 인물의 출현을 바라는 지역민의 꿈이 마랑장군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마랑장군은 대가야의 역사적 패배를 보상해줄 수 있는 민중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마랑장군은 아기장수 전설과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²⁶⁾ 〈거북바위〉 전설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대가야의 영웅적 인물 '마랑장군'의 활약을 부각하고 있다.

〈신동의 비녀〉는 금산의 망산성에서 최후의 전투를 전개한다. 〈신동의 비녀〉 전설은 대가야와 신라의 전쟁으로 인해 대가야의 왕이 피신하지만 국가의 재건을 다짐하고 있다. 대가야는 신라군에 맞서 싸울 국력이 쇠퇴했음에도²⁷⁾ 금산의 망산성²⁸⁾을 최후의 보루로 대항한다. 신라군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 대가야 군사는 회천을 건너 후퇴하고 신라군은 대가야국의 왕실까지 침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가야의 왕은 당황하여 왕비와 궁녀를 거느리고 도망친다.²⁹⁾

대가야국은 이에 맞서 싸울 국력이 이미 없어진 때였다. 금산의 망산성을 최후의 보루로 싸우다가 회천을 건너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사부의 군대는 강물을 건너 쉽게 도읍지인 고령까지 침공해 왔다. 이에 당황한 대가야국의 마지막 임금인 이뇌왕은 왕비와 수십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허둥지둥 달아났

24) 고령문화원, 앞의 책, 75~76면.

25) 이인철, 「6~7세기의 무기·무장과 군사조직의 편제」, 『한국고대사론총』 7집,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54면. 중장기병의 보유 비율을 보면 신라는 높고 대가야는 낮았다.

26) 아기장수는 민중영웅으로 출생했지만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다. 반면에 대가야의 마랑장군은 신라의 침입에 대가야의 군사를 지휘하는 민중영웅의 활약을 보여준다.

27) 김부식, 이병도 역주, 앞의 책, 94~95면. 진흥왕 15년에 명활성을 수축하고 백제와 대가야가 함께 관산성을 침입했지만 대패한다. 따라서 대가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28) 김종철, 앞의 논문, 172면. 금산의 망산성은 전략상 요충지로 고령읍의 정동에 우뚝 솟은 금산의 정상에 있는 산성으로 신라군을 대적하는 최후 방어성의 역할을 한다.

29) 고령문화원, 앞의 책, 86면. 제보자는 김용상(남, 70)외 마을주민 4명이다.

다. 궁성을 빠져나온 왕의 일행이 지금의 고령읍 신동에 이르렀을 때 왕녀와 궁녀의 머리는 허트러질 대로 흐트러졌다.³⁰⁾

앞의 인용문과 같이 신라의 침입에 대가야 왕실이 도망친 곳은 가야산이다. 대가야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가야산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야국의 역사가 시작된 성지이다.³¹⁾ 이러한 가야산의 성지로 도망치기 위해선 신동을 지날 수밖에 없다. 신동은 고령의 주산성에서 가야산으로 가는 지름길에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신동의 비녀〉는 대가야의 왕실이 신동을 거쳐 가야산으로 피신했던 역사적 사건을 수용하고 있다.

〈썩은덤〉은 고령읍에서 쌍림면 방면으로 약 2km 지점에 있는 벼랑에 대한 유래이다. ‘썩은덤’은 석재로 사용할 수 없는 풍화암으로 된 썩은 바위에 부쳐진 이름이다.³²⁾ 〈썩은덤〉은 대가야 왕실의 권위 실추와 백성의 분열로 인하여 대가야 지배층과 백성들 사이의 힘을 통합시키지 못한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준다. 〈썩은덤〉 전설은 지명개칭을 통해서 단결하지 못한 대가야가 왕실과 백성의 분열로 인하여 패망한 것이다. 대가야의 지명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옛날 대가야국시대 때 이곳을 지나던 한 도인이 ‘썩은덤’을 보고는 “이 덩을 ‘썩은덤’이라 부르지 말고 ‘산덤’이라 부르면 이 ‘썩은덤’ 산이 강을 건너 투구모양의 산이 있는데 투구봉까지 뻗어 고지세에 힘을 입어 영웅호걸들이 많이 태어날 지세인데”³³⁾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이 5리 길을 달려가 대가야의 왕에게 전한다. 대가야

30) 고령문화원 편, 앞의 책, 86면.

3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령현조에 수록된 신화는 가야산신과 천신의 감응을 통해서 대가야가 출발한다.

32) 김재웅, 앞의 논문, 122~124면.

33) 고령문화원 편, 앞의 책, 93면.

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하면 불안과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대가야의 왕은 어전회의를 열어 ‘산덤’으로 변경하고 팔월 보름날 ‘씩은덤’에서 축하 잔치를 개최하기로 한다.³⁴⁾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씩은덤’ 잔치에서 잘 먹었다고 말한다. <씩은덤> 전설은 대가야국의 왕실과 백성들의 거리감 때문에 지명 변경이 실패한 것이다.

이상에서 대가야 전설은 신라와 관련된 역사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외교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온 대가야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동산성>은 도인까지 출현하여 산성 구축을 도왔으며, <거북바위>는 죽은 마량장군이 부활하여 신라군을 물리치고, <신동의 비녀>는 왕실의 패망을 국가 재건의 비장한 각오로 승화시키고 있다. <씩은덤>은 도인이 출현하여 지명 변경을 통해서 영웅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야 전설은 역사적 패배를 극복하려는 지역민의 역사의식을 뚜렷이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대응

대가야 전설의 저항의식은 민중의식 속에 잠재하다가 고려말과 조선초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거듭 재창조되었다. 예컨대 <미송산과 미송장군>은 왕조교체기에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한 미송장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송암선생 부인과 박>, <오로성 이야기>,³⁵⁾ <구곡동의 전설> 등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에 왜적과 일본에 저항하고 있다. 대가야 전설의 저항의식과 역사의식은 시대적 변천을 거치면서도 거듭 재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34) 노중국,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171면. 김정숙, 「대가야의 성립과 발전」, 같은 책, 119쪽. 여기서 어전회의는 왕과 여러 투쟁들이 더불어 논의하고 결정했던 ‘임나부흥회의’와 ‘한기회의’ 같은 회의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35) 임진왜란 때 오로동 주민이 성을 쌓아서 왜적을 방비한 이야기이다.

러한 외세에 대한 저항의식의 근원은 바로 대가야 전설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미승산과 미승장군〉, 〈미승장군과 애마〉는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의 왕조 교체기에 고려에 충성을 다한 이미승 장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승산과 미승장군〉에는 고려의 재건을 노렸던 미승장군이 이성계 군사에게 패하여 미승산에서 자결한다. 조선왕조를 창업한 이성계의 회유를 뿌리치고 고려왕조를 위해서 절개를 지킨 미승장군의 기개를 표상하고 있다.

이미승 장군은 고려 상원산(미승산)에 성을 쌓고 군사훈련과 군비확보에 진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절벽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휘하 장병들도 그를 따라 몸을 던져 절개를 지켰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충의를 깊이 추모하기 위하여 상원산을 미승산이라 부르게 되었다.³⁶⁾

위의 〈미승산과 미승장군〉은 미승산의 지명유래와 고려왕조에 충성을 다한 이미승 장군의 절개가 복합되어 있다. 고려에서 제일 높은 미승산의 본래 이름은 상원산이었다. 그런데 고려왕조에 절개를 지킨 미승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상원산을 ‘미승산’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에게 패배한 미승장군의 비극적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미승산에 그 이름을 남겨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패배를 당한 미승장군의 충성을 미승산의 유래를 통해서 영원히 추모한 것으로 보인다.

〈송암 선생 부인과 박〉은 임진왜란 때 송암 선생의 부인이 선견지명으로 왜적의 침략을 막아낸 이야기이다. 임진왜란이 발생할 것을 짐작한 부인은 마을주민들에게 박을 심으라고 당부했다. 수확한 박을 검은색으로 칠하여 무쇠와 구별하지 못하도록 지혜를 발휘한 부인 덕분에 왜적을 물리친 것이다.

36) 김광순, 앞의 책, 303~305면.

며칠 뒤에 왜적이 양전동을 지나다가 수백 호 되는 마을이라 (정유재란 때 왜적이 이 양전동을 불태우기 전에는 수백 호 되는 큰 마을이었다 함) 들어가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마을 주변에 늘어놓은 '무쇠 뒤편'을 보고 이상히 여겨 들어보니 한 개의 무게가 무려 450근이라 감히 들 수가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양전 동민 오천여 명은 남녀노소 일제히 고향을 치면서 왜적이 들어본 '무쇠 뒤편'(사실은 박으로 만든 가벼운 뒤편)과 같은 것을 한 손으로 들고 북소리를 요란하게 하였다. 일본 왜적들은 크게 놀라며 "이 곳은 모두 힘센 장사들만 사는 것이니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니 빨리 도망가자"하고는 도망쳤다고 한다.³⁷⁾

위의 인용문에서 송암 선생의 부인은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왜적을 물리치는 여성영웅의 모습을 보여준다. 의병장 아내로서 선견지명을 발휘한 부인의 재치를 통해서 국난을 극복하려는 의식을 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왜적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저항의식을 송암 선생의 부인을 통해서 부각한다. 이러한 의병장 송암 김면장군과 관련된 전설은 <반운리 우물의 전설>, <송암 김면 장군의 호 송자에 얽힌 이야기>, <회선대> 등과 같이 여러 편이 존재하고 있다.

<구곡동의 전설>은 일제강점기 때 구곡동 직당산의 혈을 자른 일본경찰에 대한 비판의식이 나타난다. 점장은 직당산에서 큰 인물이 출생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일본경찰이 산의 핏줄기를 잘라버렸다. 그래서 직당산에서 용이 승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경찰이 박탈한 것이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직당이라는 곳에 갑자기 진한 안개가 산을 휘감아 오르더니 연이어 붉은 핏줄이 산을 휘감아 올라가는 것이다. 그 풍경이 꼭 태몽하는 여인의 모습이라고들 한다. 다시금 그 점장이 오더니 절을 하고 다시금 신신 당부하는 것이다. 이 때가 일제시대인 만큼 침자와 간신이 우글거리는 마당에 그 말이 곧 일본 경찰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경찰이 급히 산을 올라가 핏

37) 김재웅, 앞의 책, 324~325면.

줄기의 목부분을 칼로 잘라버렸다. 그 긴 핏줄은 그 목부분으로 물러들더니 그 곳에 있는 돌을 붉게 물들이고 말았다. 그 후로 마을은 어수선히지고 하여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데 그 맑은 날에 구슬비가 얼마나 슬프게 오는지 모든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고 하였다. 그 무당은 그 혼을 달래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굿을 하다 그만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 핏줄을 자른 뒤 그 많은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³⁸⁾

이러한 신성한 혈맥자르기에 대한 지역민의 비판의식은 전국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직당산의 용은 선인을 대표한다면 이무기는 악인을 대표한다. 고령지역에서 훌륭한 인물이 출생하는 산세의 혈맥을 일본경찰이 끊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 저항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구곡동의 전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경찰이 신성한 산의 혈맥을 자르는 모습을 통해서 반외세의 저항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IV. 고령지역 설화에 나타난 비극성

1. 산성 쌓기와 속임수

신라의 침략에 대가야는 전략적 요충지 예동산성에서 방어전을 펼쳤다. 예동산성은 고령군 덕곡면 예동 뒷산에 있다. 대가야의 고령읍 연조리 일대를 감싸고 있는 주산성과 망산성은 도성을 방어하고, 서쪽의 미송산성, 서남쪽의 만대산성, 남쪽의 소학산성은 주산성의 서남쪽 배후를 방어한다. 그리고 예동산성은 고령에서 북쪽으로 침입하는 적을 격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³⁹⁾

38) 김재웅, 앞의 책, 380~381면.

39) 김종철, 「고령군 문화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7, 174면. 이밖에도 대가야의 산성은 본관리산성, 운리산성, 노고산성, 의봉산성, 풍곡산성, 무계리산성, 도진산성 등 많은 산성이 도성을 중

신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대가야의 산성 쌓기는 〈예동산성〉 전설에 등장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대가야 사람들은 덕곡면 예동 뒷산에 산성을 구축키로 하고 산성을 쌓는 데 산의 경사가 너무 심하여 산성구축이 매우 어려웠다. 그때 염력을 쓰는 道人이 찾아와 자기가 산성을 구축하겠다고 하니 대가야에서는 그 사람에게 산성을 쌓기로 하였다. 그런데 신라의 염탐군이 이 사실을 알고 신라 군사에게 아뢰니 ‘매월’이라는 젊은 여자를 보내어 도인을 미인계로 유혹하였다. 달콤한 미인의 유혹으로 도인은 술에 태운 독약을 먹고 죽어 버리고 대가야는 망하고 말았다.⁴⁰⁾

〈예동산성〉 전설은 신라와 대가야의 역사적 전쟁과 문학적 대응을 보여준다.⁴¹⁾ 대가야 전설은 역사적 기록과 다르게 패배한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삼국통일을 염원한 신라에게는 가야연맹이 항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신라 진흥왕이 5가야의 항복을 받았지만 대가야는 끝까지 저항한 것이다. 그런데 산의 경사가 급하여 대가야의 산성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위기에 빠진 대가야를 돕기 위해서 도인이 산성 쌓기를 도와주었다.

대가야의 산성 쌓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염탐꾼은 이 사실을 신라군에게 보고하여 신라군은 ‘매월’이라는 여인으로 도인을 유혹하게 한다. 신라의 미인계에 속은 도인은 독약이 든 술을 먹고 죽었다. 예동에서 산성을 쌓았던 대가야는 신라의 미인계에 속아서 패망한 것이다. 지금도 예동 뒷산에 쌓다가 그만 둔 산성이 대가야 패망의 서글픈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심으로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가야는 이 산성을 전략적 요충지에 건설했기 때문에 신라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40) 고령문화원, 앞의 책, 47면. 제보자는 김병수(고령군 덕곡면 반성동 735번지)이다.

41) 김종철, 앞의 논문, 174면. 예동 산성은 고령 북쪽에 있어서 북쪽으로 침입하는 적을 봉쇄한다.

〈예동산성〉 전설은 신라에 복속되기를 거부한 대가야의 저항의식과 비극성이 반영되어 있다. 대가야와 신라의 전쟁에서 산성 구축이 어려운 것은 자력으로 신라에 대항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것이다. 대가야의 생존권이 산성 구축의 성패에 직결되기 때문에 도인까지 등장하여 대가야를 돕게 된다. 여기서 도인은 대가야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백제세력으로 볼 수 있다. 백제는 대가야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서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염탐꾼에 의해 대가야의 산성 쌓기 소식을 들은 신라는 ‘미인계’를 사용한다. 이러한 신라의 속임수 전략은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을 관망하다 성을 함락하는 방법과 비슷하다.⁴²⁾ 지역민들은 신라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가야를 멸망시킨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예동산성〉 전설은 신라의 침입에 끝까지 결사항전한 대가야인의 저항의식을 강조하면서도 대가야의 패망을 수용하는 전설의 비극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 대가야는 산성 쌓기와 신라에 대항할 전략이 부족하여 신라의 ‘미인계’에 속아서 패망한다. 〈예동산성〉의 비극성은 대가야의 역사적 패배를 안타까운 시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적어도 신라의 ‘미인계’에 속지 않았으면 대가야는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역민의 의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가야의 패망 원인은 산성 축성기술과 신라의 전술을 파악하지 못한 정보력의 부족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극성은 극대화 되어 나타난다.⁴³⁾

42) 김부식, *이병도 역주, 앞의 책*, 93쪽. 신라 진흥왕 11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쳐 빼앗고,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두 나라 군사가 피로한 틈을 타서 이찬 이사부로 하여금 군사를 내어 이를 쳐 빼앗고 성을 증축하여 무사 1,000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43)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존재양상과 특성 연구」, 『한국어문연구』 14집, 한국어문연구학회, 114~117면.

2. 영웅적 인물의 출현과 비극적 죽음

〈거북바위〉는 고령읍 지산동 주산에 있었던 조그마한 바위에 대한 유적이다. 낙동강 유역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가야는 대외적인 외교를 통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대가야를 수호하는 영웅적 인물의 출현을 기대하였다. 대가야에는 마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마량의 집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수백 마리의 거북이 살고 있었다. 마량의 선친께서는 거북을 아주 귀여워하여 길렀는데 마량도 거북들을 자기의 분신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세월이 흘러 마량은 훌륭한 대가야의 장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신라 진흥왕은 육가야 중 대가야국을 제외한 가야를 모두 항복을 받고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는 대가야국을 정벌하기 위하여 이사부 장군에게 5천의 군사를 주어 대가야국을 침공했다. 전쟁에 휩싸인 대가야국은 중과부적으로 대가야국이 패하고 말았다. 마량 장군은 신라군에게 포위가 되어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끝내는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⁴⁴⁾

위의 인용문과 같이 대가야국의 마량장군이 신라군의 침입에 맞서 결사 항전했지만 패배한다. 대가야의 마량장군은 신라군에게 포위되어 끝까지 항전했으나 끝내는 중과부적으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다. 그럼에도 〈거북바위〉 전설은 대가야의 영웅적 인물 ‘마량장군’이 신라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마량 장군이 죽은 지 삼일이 지나자 마량 장군이 생전의 모습대로 나타나서 나뭇잎 배에 수많은 거북 군사들을 태우고 신라군을 무찌르기 시작하였

44) 고령문화원, 앞의 책, 75~76면.

다. 마침내 신라군은 마량 장군의 귀신과 거북이 군사들의 힘에 쫓겨 도망을 하게 되었다.⁴⁵⁾

위와 같이 죽은 마량장군은 부활하여 나뭇잎 배에 수많은 거북 군사들을 태우고 신라군을 무찌르기 시작한다. 마침내 신라군은 마량장군의 귀신과 거북이 군사들의 힘에 쫓겨 도망을 하게 되었다.⁴⁶⁾ 이것은 죽은 마량장군과 거북이 환생하여 신라군을 격퇴해주길 기원하는 지역민의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거북바위〉 전설은 영웅적 인물의 출현과 비극적 죽음을 보여준다. 마량 장군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거북을 기르면서 성장하여 대가야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 이는 신라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영웅적 인물의 탄생을 바라는 민중의 꿈이 마량장군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대가야가 신라군의 침입에 대항했지만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고,⁴⁷⁾ 마량장군은 최후까지 싸우며 장렬하게 죽는다.

〈거북바위〉 전설은 역사적 기록과 달리 마량장군의 비극적 죽음을 통한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대가야의 마량장군이 부활하여 신라군을 물리쳤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영웅적 인물의 출현과 저항의식을 투영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패배한 사실을 문학적 대응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전설의 비극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대가야국이 신라에 패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설의 비극적 세계관을 표출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서 마량장군이 죽은 지 오랜 후에 마량장군이 죽은 그 자리에 이 상한 바위가 솟아났는데, 그 형상이 꼭 거북이 닮아서 “거북바위”라고 후세 사람

45) 고령문화원, 앞의 책, 75~76면.

46) 고령문화원, 앞의 책, 75면.

47) 이인철, 「6~7세기의 무기·무장과 군사조직의 편제」, 『한국고대사론총』 7집,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54면. 중장기병의 보유 비율을 보면 신라는 높고 대가야는 낮았다.

들이 불렀으며 …… 지금은 바위도 없어지고 이끼만이 대가야의 멸망된 것을 서러워하듯 자라고 있다.⁴⁸⁾

이상에서 〈거북바위〉 전설은 대가야가 신라에게 패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중의식 속에는 마량장군이 부활하여 신라의 침공을 물리친 것으로 변모되었다. 대가야가 신라에 패배한 역사적 사실을 정신적으로나마 신라에 저항한 전설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⁴⁹⁾ 이런 점에서 고령지역의 설화는 역사적 사실과 전설의 대응 속에서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문학성을 획득할 수 있다.⁵⁰⁾ 〈거북바위〉 전설은 대가야의 영웅적 인물 마량장군이 출현하여 신라의 침입을 격퇴했지만 중과부적으로 패배하는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거북바위〉 전설은 마량장군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민중영웅의 출현을 기원하는 지역민의 소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대가야 재건의 비장한 각오

〈신동의 비녀〉는 신라의 침입으로 대가야국왕이 신동까지 피신하게 되지만 신동에서 새로운 국가 재건을 다짐하고 있다. 대가야는 신라에 맞서 싸울 국력이 쇠퇴했지만,⁵¹⁾ 금산의 망산성⁵²⁾을 최후의 보루로 대항하였다. 신라군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 대가야군이 회천을 건너 후퇴하고 신라군은 대가야국의 왕실까지 침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가야국의 왕은 왕비와 궁녀를

48) 고령문화원 편, 앞의 책, 76면.

49) 김재웅, 앞의 논문, 117~119면.

50)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51면.

51) 김부식, 이병도 역주, 앞의 책, 94~95면. 진흥왕 15년에 명활성을 수축하고 백제와 대가야가 함께 관산성을 침입했지만 대패한다. 따라서 대가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52) 김종철, 앞의 논문, 172면. 금산의 망산성은 전략상 요충지로 고령읍의 정동에 우뚝 솟은 금산의 정상에 있는 산성으로 신라군을 대적하는 최후 방어성의 역할을 한다.

거느리고 도망친다.

망해 가는 나라의 비운 앞에 무엇을 바랄 것이냐. 아니 잠시 이 난을 피했었다가 다시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 아래 왕비와 궁녀가 대가야의 서울을 하직하는 기념으로 비녀를 떨어뜨리고 가야산 쪽으로 피난 간다하여 신동일대를 玉簪이라 부르고 있다.⁵³⁾

대가야국 왕실은 궁성을 빠져나와서 망해 가는 국가의 운명을 인식하면서도 국가의 재건을 비장한 각오로 다짐한다. 대가야의 재건을 다짐한 왕은 대가야의 도성을 하직하는 의식으로 비녀를 빼서 놓아두고 가야산으로 떠난다. 가야산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야국의 역사가 시작된 성지이다.⁵⁴⁾

〈신동의 비녀〉는 고난이 심화되면서 현실적, 무력적 대응에서 정신적 대응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패배를 정신적으로 보상하려는 지역민들의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가야국왕은 비탄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국가의 재건을 다짐하면서 비녀를 빼서 놓아둔다.⁵⁵⁾ 국왕이 비녀를 빼는 것은 대가야국의 패망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를 재건하려는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는 대가야국왕이 가야산으로 피신하는 것에서 구체화된다. 가야산은 대가야인의 정신적 지주이며 대가야국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국가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염원이 담겨 있다.⁵⁶⁾

이상에서 〈신동의 비녀〉 전설은 신라군에 직접 대항할 능력을 상실한 대

53) 고령문화원 편, 앞의 책, 86면.

5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령현조에 수록된 신화는 가야산신과 천신의 감응을 통해서 대가야가 출발한다.

55) 여성의 통과 의례에 사용되는 비녀는 한 집단의 어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상징물이다.

56) 김재웅, 앞의 책, 321~325면.

가야는 정신적으로나마 신라군을 격퇴하려는 비장한 저항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무력을 통한 현실적 대항은 한계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신라군을 격퇴하고 대가야국을 재건하는 일은 언제나 재생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동의 비녀〉 전설은 신라군에 패망한 대가야 왕실이 가야산으로 피신하는 비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극성에는 새로운 대가야의 재건을 기원하는 지역민들의 저항의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4. 왕실의 권위 실추와 백성의 분열

〈썩은담〉은 대가야의 지명개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이다. 대가야국의 지명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당분간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썩은담’을 ‘산담’으로 바꾸면 영웅이 탄생한다는 도인의 예언은 대가야국에 유리한 소식임에는 분명하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이 5리 길을 달려가 대가야국왕에게 전한다. 대가야국왕은 어전회의를 열어 지명 개칭의 문제를 논의해 ‘썩은담’을 ‘산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축하 잔치를 개최했다.⁵⁷⁾ 지명 개칭 축하를 위해서 팔월 보름날 ‘썩은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즐겼다.

그 날 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밥으로 하루의 잔치를 마치고 밝은 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취한 기분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마다 중얼거리기를 “오늘 썩은담 잔치 정말 잘 먹었다”하고 돌아들 갔다. 썩은담을 산담으로 부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마련한 산담 개칭은 헛수고가 되어 버리고 오히려 썩은담 이름은 더욱더 알려졌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가야국은 신라에 망해버려 대가야국 역사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⁵⁸⁾

57) 노중국,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171면. 김정숙, 「대가야의 성립과 발전」, 같은 책, 119면. 여기서 어전회의는 왕과 여러 한기(旱岐)들이 더불어 논의하고 결정했던 ‘임나부흥회의’와 ‘한기회의’ 같은 회의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과 같이 술에 취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씩은담’ 잔치에서 잘 먹었다고 말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명을 변경하려던 축제는 실패하고 ‘산담’보다 ‘씩은담’이 알려져 대가야는 패망한 것이다. 이것은 대가야국의 왕실과 백성들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지명 변경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은 대가야의 패망 원인을 ‘씩은담’을 ‘산담’으로 지명을 성공적으로 바꾸지 못한 점에서 찾고 있다.

〈씩은담〉 전설은 지명 변경을 둘러싼 왕실의 권위 실추와 백성의 분열로 인하여 패망한 것이다.⁵⁹⁾ 역사적으로 대가야의 연맹회의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여 패망하는 것과 연관성을 보여준다. 대가야의 도인이 영웅의 탄생을 예언한 것은 가야연맹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씩은담〉 전설은 지명 변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한 대가야의 왕실과 백성의 거리감을 부각하고 있다.

이상에서 〈씩은담〉 전설은 대가야의 왕실과 백성의 거리감 때문에 지명을 변경하는 축제는 실패로 결말되었다. 대가야의 위기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명 변경은 과감하게 추진되었지만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지역주민들은 대가야 왕실의 권위 실추와 백성의 분열로 지명을 변경하는 축제는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씩은담〉 전설은 영웅의 출생을 기원한 대가야의 지명 변경축제가 실패하여 패망한 것이다. 이러한 대가야의 패망 원인은 왕실과 백성의 의사소통 부족을 통해서 비극성은 극대화 되어 나타난다.

58) 고령문화원 편, 앞의 책, 93면.

59) 김재웅, 앞의 책, 325~330면.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령지역 설화의 역사성과 비극성을 살펴보았다. 고령지역의 설화는 지역성과 역사성을 내포한 전설이 풍부한 편이다. 고령지역 설화는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비극적 패망, 왕조 교체기의 충절의식,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의 저항의식 등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문학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령지역의 역사와 설화의 대응관계는 지역민의 역사성과 비극성을 해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고령지역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은 지역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문학적 대응을 보여준다. 대가야의 건국신화 〈정견모주〉는 대가야가 가야연맹의 맹주로 성장하는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가야의 패망과 전설의 대응은 〈예동산성〉, 〈거북바위〉, 〈신동의 비녀〉, 〈썩은덤〉 등에서 나타난다. 대가야의 패망에 관련된 전설은 비극적 역사의식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야 전설의 역사성과 저항의식은 민중의식 속에 잠재하다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거듭 재창조되었다.

고령지역 설화에 나타난 비극성은 대가야의 안타까운 패망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대가야 전설은 신라의 침략에 저항하는 문학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예동산성〉은 신라군의 침략에 대비해 산성을 축조했으나 신라의 속임수에 속아서 패배하는 비극성 표출하고 있다. 〈거북바위〉는 대가야의 마량장군이 신라의 침입에 대항하는 민중의식을 보여준다. 〈신동의 비녀〉는 신라에 패전하여 대가야의 왕실이 가야산으로 피신하면서도 비녀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재건을 다짐하는 비장한 각오가 내포되어 있다. 〈썩은덤〉은 대가야 왕실의 권위 실추와 백성의 분열로 인하여 소통하지 못한 지도자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대가야 전설은 역사적 패배를 극복하려는 지역민의 비극적 저항의식을 확장하고 있다.

대가야 전설은 고령지역의 역사성과 비극성을 통해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부각하고 있다. <예동산성>은 도인까지 출현하여 산성 구축을 도왔으며, <거북바위>는 죽은 마량장군이 부활하여 신라군을 물리치고, <신동의 비녀>는 왕실의 패망을 국가 재건의 비장한 각오로 승화시키고 있다. <썩은땀>은 도인이 출현하여 지명 변경을 통해서 영웅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야 전설은 역사적 패배를 극복하려는 지역민의 비극적 저항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고령지역의 설화는 역사성과 비극성을 통해서 대가야의 건국과 패망에 대한 관심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문학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 고령문화원 편, 『우리 지방의 민담·전설 및 지명유래』, 고령문화원, 1988.
- 김광순, 『한국구비문학 경북 고령군』, 박이정, 2006.
- 김광순, 『경북민담』, 형설출판사, 1978.
- 김광순,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설출판사, 1983.
- 김부식,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6.
- 김재웅, 「고령지역 설화의 전반적 고찰」,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
구원, 1997, 135~161면.
- 김재웅,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7.
- 김재웅, 「군위지역 설화의 연구」, 『군위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8, 187~207면.
-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존재양상과 특성 연구」, 『한국어문연구』 14집, 한국어문연구학
회, 2003, 109~126면.
- 김재웅, 「대가야 전설의 양상과 의미」, 『대구·경북 지역의 설화 연구』, 계명대출판
부, 2007, 303~330면.
- 김재웅, 『잊혀져 가는 고령 지역의 마을문화』, 고령문화원, 2002.
- 김정숙, 「대가야의 성립과 발전」, 『가야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 김종철, 「고령군 문화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계명대
학교 한국학연구원, 1997.
- 노중국, 「대가야의 정치·사회구조」, 『가야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 이문기, 「대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 이인철, 「6-7세기의 무기·무장과 군사조직의 편제」, 『한국고대사론총』 7집, 한국고
대사연구회, 1995.
- 이지하, 「고령지역 설화의 특징과 가치」, 『고령문화사대계 문학편』 3권, 경북대 퇴계
연구소, 2009, 205~233면.
- 이형우, 「대가야의 멸망과정」, 『가야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 일연, 이가원 역, <가락국기>, 『삼국유사』, 태학사, 1991, 179면.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3.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Abstract

Historical and Tragic Factors of Goryeong Tales

Kim, Jae-Woong

Tales of Goryeong area show literary actions against historical changes such as Daegaya's establishment and defeat, fidelity during the dynasty change's period, and resistant spirit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Japanese colonial rule. The birth myth of Daegaya <Jeonggyeonmoju> depicts Daegaya developing as the leader of Gaya League. Such tales as <Yedong Mountain Fortress>, <Turtle Rock> <Sandong's hairpin> and <Rotten Pile> reflect tragic and historic spirit of Gaya people. This historical and resistant spirit of Goryeong tales, which lurked in the public mind, was recreated later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story <Yedong Mountain Fortress> Tragic factors can be founded. Daegaya built the mountain fortress against Silla invasion but was defeated by a trick. <Turtle Rock> Shows the public's resistant spirit against Silla invasion of Daegaya. <Sandong's hairpin> implies a grim resolution of rebuilding a new nation. <Rotten Pile> tells about the limitation of the leader who was defeated by disruption of the people and fall of the royal family. All these tales emphasize tragic resistant spirit to get over historical defeat.

Key Word

Goryeong area, tales, legend, Daegaya, historical factors, tragic factors, defeat, resistant spirit, literary actions

▪ 논문투고일 : 2010.6.22. 심사시작일 : 2010.7.1. 심사완료일 : 2010.7.10.